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68호 [루게 제 24846호] 주제 104 (2015)년 3월 9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흙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6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흙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6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항병서동지, 조경철동지, 리병철동지, 손철주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타신 전용기가 착륙한 작전비행장에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침략자들과 그 졸개무리들이 땅우에서 영영 쓸어버릴 원수격멸의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었으며 영웅한 붉은 매들은 당중앙의 출격명령을 기다리며 출격태세에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전용기에서 내리시자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영접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새로 기술 개건한 군부대의 풍력 및 태양빛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 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간 전기기술들은 비행사들의 가슴속으로 이어진 장군님의 사랑의 젖줄기이고 뜨거운 피줄기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풍력 및 태양빛발전소는 자연에너지의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구현된 발전소라고 하시면서 풍력과 태양빛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뿐 아니라 전력생산량도 크게 늘인 결과 비행사들과 군인들, 군인가족들이 전기덕을 단단히 보고있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자연에너지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행사들에게 안겨주시는 선물로 건설된 군부대의 풍력발전소를 풍력은 물론 태양빛까지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현대적인 자연에너지발전소로 전면시킴을 직접 받기하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긴 조선인민군 제6556군부대와 국가과학원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인 지혜와 열정을 다 바

침으로써 날씨와 계절에 구애없이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종합적인 전력생산기지를 훌륭히 꾸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풍력발전기와 준비하게 설치된 태양빛발전지들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2011년 11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이곳을 돌아보던 일이 기억에 생생하다고 하시면서 잊지 못할 그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던 그날 찬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고, 하지만 장군님께서 기운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를 보시며 비행사들이 전기가 부족한 곳이지만 전기걱정을 모르고 생활하게 하려던 소원을 풀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군부대의 풍력 및 태양빛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산이라고, 발전소의 송전망에서 줄줄이 뻗어

전력생산기지만 동시에 비행사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전하는 교양 거점이라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어리여있는 발전소를 더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장군님의 령도업적의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흙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6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발전소를 돌아보니 정말 기쁘다고, 멋있다고 하시면서 군민협동작전으로 내놓고 자랑할만 한 풍력 및 태양빛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한 조선인민군 제6556군부대와 국가과학원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풍력, 태양빛, 지열을 비롯한 자연

에너지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에 건립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와 군인회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국방위에서 항공무력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항공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시였다고, 주체의 항공무력의 발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의 령도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항공군령도실록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비행사들이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드넓은 하늘길에서도 오직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결사의 항로만을 날아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앞으로 조국의 푸른 하늘에 영웅적위훈의 비행

운을 새겨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회관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 꾸렸다고 치하하시고 전투비행사들을 하늘의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키자면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반계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 로선과 3대과업, 5대교양을 3대축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사적이 깃든 단원들을 잘 꾸리고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는것은 군사, 정치, 후방사업을 비롯한 인민군대 모든 사업의 시초, 시작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최강군으로 만들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비행련습실, 2대대 비행강실을 돌아보시면서 전투정치훈련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3 면 으 로 계속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흙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6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2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이 컴퓨터에 의한 비행조종연습기재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아주시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것이 좋다고, 모든 비행사들이 공중에서 비행체제를 잘 유지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훈련을 실속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이와 함께 훈련기재들을 더욱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이 훈련을 통하여 언제 어느때 그 어떤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어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키자면 모든 비행군부대들에 비행훈련관을 잘 꾸리고 훈련의 질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이 군부대의 비행장뿐만 아니라 생소한 비행장들에서의 리착륙기동방안과 지형을 깊이 연구학습하며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사침실, 세면장, 공창고, 식당, 취사장, 반공룡식온실, 버섯재배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비행사들의 생활

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의 침실을 돌아보시면서 더 잘 꾸려주라고 이르시였고 태양열물가열기에서 나오는 세면장의 물온도를 가늠해보시면서는 한겨울에도 더운물을 사용하도록 해주니 자신의 마음이 훈훈해진다고 기뻐하시였다.

공창고에 들리시어서는 콩농사를 더 잘하는것과 함께 콩가공설비도 그쁘히 갖추어놓고

여러가지 콩음식을 만들어 급식시켜야 한다고 하시였고 취사장의 조리대에 차려놓은 음식감들을 보시면서는 당에서 금싸래기처럼 아끼는 비행사들의 식사보장을 맡은 취사원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이 비행사들의 식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온실, 버섯재배장들을 건설하여 사철 신선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보장

해주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이 깃든 추격기 109호기를 비롯한 군부대의 추격기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항공군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체취가 스며여있는 사적비행기들을 책임적으로 더 잘 관리하여 싸움의 그날 붉은 매들의 맨 앞장에서 조국수호의 항로를 날으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경상적인 전투동원태세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함으로써 당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지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를수 있게 준비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전투비행사들,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군부대지휘관들에게 자신께서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화장품과 식료품을 마련해가지고 왔는데 비행사안해들에게 3.8절을 축하하는 최고사령관의 인사와 함께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대해같은 은덕을 받아안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6군부대 전투비행사들과 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맺은 정을 피출처럼 간직하고 싸움준비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결전의 그날 김정은붉은비행대의 위용을 만방에 떨칠 결사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 불후의 고전적로작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이다》 발표 20돐과 3.8국제부녀절 105돐기념 중앙보고회와 중앙위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이다》 발표 20돐과 3.8국제부녀절 105돐기념 중앙보고회와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시대를 빛내이는 여성혁명가가 되자!》, 《3.8국제부녀절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보고회에는 최룡해 동지, 양형섭

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한광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 연구소 소장, 근로단체, 출판보도 녀절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보고회에는 최룡해 동지, 양형섭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 동포녀성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녀성들이 보고회에 초대되었다. 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회는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인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를 충경다해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군시대 조선녀성의 본분을 다해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민치는 속에 진행되었다. 보고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 중앙보고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온 나라 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이다》 발표 20돐과 전세계 근로녀성들의 명절인 3.8국제부녀절 10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엄에 의하여 조국의 강성번영과 사회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하여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고있는 온 나라 녀성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

이날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엄에 의하여 조국의 강성번영과 사회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하여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고있는 온 나라 녀성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남녘의 녀성들과 해외동포녀성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녀성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나라 녀성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3.8국제부녀절이 제정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00여년은 세계의 진보적녀성들이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의 구호를 들고 힘차게 투쟁해온 보람찬 나날이었으며 진보적녀성들의 국제적단결과 연대성이 강화되고 세계 녀성운동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역사적인 로정이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녀성들이 3.8국제부녀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녀성들처럼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무한한 영광과 녀성으로서의 크나큰 행복감을 넘쳐 이날을 기념하는 녀성들은 세상에 없습니까.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자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조선녀성운동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마련 해주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한평생 녀성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녀성들을 낳은 사회의 구성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시것은 자주시대 녀성운동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입니다.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신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녀사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수놓아져있으며 그것은 조선녀성운동의 고귀한 재보로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녀성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시며 조선녀성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켜주시었습니다.

영웅으로, 로력혁신자로 값있는 삶을 누려주시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인 2011년에 녀명예술소조원들의 미숙한 공연을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녀성동맹은 선군시대의 힘있는 조직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영원히 우리 녀성들의 심장속에 되새겨져있었습니다.

조선녀성운동은 오늘 또 본분의 백두산형의 위인인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시며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고결한 총정과 숭고한 도덕의리로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주시어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선다는 신념의 기둥을 더욱 억척같이 세워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신것은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한 력사적 사면입니다.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진행된 2012년의 성대한 음악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녀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시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날을 제정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첫 어머니날을 맞으며 제4차 전국 어머니대회를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대회 참가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의 한없이 다신하고 은정깊은 사랑에 의하여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과서, 평양산원 유년총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평양음악원, 애육원을 비롯한 최장급의 창조물들이 수많은 일터에서 우리 녀성들과 인민들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이 활짝 꽃피고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녀성비밀자꽃길은 대회장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친히 지어주시는 예기의 이름을 받아 안고 군인가족들이 우리 당의 딸, 우리 당의 며느리로 높이 떠날들의 우고있는 오늘의 감동깊은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을 모시어 꽃피던 로동당시대의 새 전설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혁명의 령도자로,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복받은 삶을 누리가고있는 조선녀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녀성들입니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의 녀성운동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 세계 진보적녀성운동의 본보기로 자랑될수있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념을 바라는 불타는 소원을 안고 삶의 순간순간을 순결한 총정으로 빛내여가고 있는것은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는 우리 조선녀성들의 참모습입니다.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들과 조국방위에 솟아난 만민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 눈부신 전진의 갈파마다에는 우리 녀성들의 순결한 향심과 고귀한 맘이 스며있습니다.

남편들과 함께 조국보위의 전초전을 굳건히 지켜가고있는 군인가족들과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에서 조선녀성의 불굴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고있는 녀성일꾼들과 로력혁신자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앞장에서 분투하고있는 녀성지식인들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한평생을 바쳐가고있는 녀성교육자들, 국제무대에서 탐홍색공화국기를 편이여 휘날리고있는 녀성체육인들과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녀명들까지를 비롯하여 우리 녀성들의 뜨거운 애국충정이 있어 우리 조국은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며 최후승리의 명마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에 내세우며 영예로운 일터의 길동무가 되고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봄 사안이 없는 늙은이들의 친어머니, 친딸이 되어 혁명의 꽃을 아낌없이 피워주고있는 녀성들의 대오가 날을 따라 늘어나 우리의 국력은 더욱 강화되고 온 나라에는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고상한 미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녀성들은 내외반동일체주의 도전과 전쟁행동을 짓부시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따라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힘있게 떨쳐나서고있으며 여러 나라 녀성조직들과 국제기구들, 진보적녀성들과의 친선과 단결, 국제적연대를 강화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조선녀성운동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이것은 녀성문제와 관련한 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한광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 연구소 소장, 근로단체, 출판보도 녀절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보고회에는 최룡해 동지, 양형섭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힘있는 파시로 됩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녀성들의 열화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조선녀성운동의 개척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우리 녀성들과 후대들의 삶의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하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나사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환속수레 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입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모든 녀성들은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대원수님들이 높이 받들어 모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인 녀성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가야 하겠습니다.

전체 녀성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본받아 친절만정의 성세, 방패가 되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단호히 지지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쏠아버리며 온 사회에 민족적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차민치게 하는데서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녀성들은 항일혁명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새긴 《죽어도 혁명적 녀 버리지 마라!》는 신념의 구호를 심장마다에 쏘아박고 그 어떤 천지공파가 닥쳐와도 일관단심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선군시대 녀성혁명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녀성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최고의 애국입니다.

군인가족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성과를 단순간도 잊지 말고 남편들이 조국번영을 위한 생선길을 맨 앞장에서 용감히 헤쳐나갈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병사들의 생활을 친어머니, 친누이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으로써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녀성들은 자식들을 조국보위 초소에 적극 내세워 선군시대의 총대가장, 혁명적군인가정대렬을 높이고 원근미풍을 더 높이 발휘할 수 있도록 자제들을 지킬수 있게 전민항전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녀성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자신들이 지켜선 혁명초소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어야 하겠습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고산과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이바지하는 녀명들까지를 활발히 벌리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높이 누에치기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녀성들은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떨쳐나 산림부근투쟁을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고 평양시와 도, 시, 군소재지들, 일터와 가정, 마을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상유지, 정상관리하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녀성동맹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본받아 친절만정의 성세, 방패가 되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단호히 지지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쏠아버리며 온 사회에 민족적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차민치게 하는데서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은 숭고한 후대판, 미래를 지니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 백두산대국의 기둥감들로 훌륭히 키우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하여 사랑과 정을 다 바치며 어머니로서, 안해로서, 며느리로서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책임과 도덕적의무를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녀성동맹안에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에 맞게 위대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체계교양, 도덕교양을 동맹사상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생활기풍을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녀성동맹을 당중앙과 영원히 사상과 슬결, 발걸음을 같이하는 일심단결의 결성체로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녀명 조직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올해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요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수령의 유년판철전, 당정책위원회로 녀성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녀성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신말씀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따라 배워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며 자기 부분,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녀성들은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선언들을 민족공동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으로 높이 들고 삼천리강토우에 존엄 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녀성들은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녀성들의 존엄과 권리를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진보적녀성들과의 국제적단결과 연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입니다.

불세출의 위인인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시며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백두의 눈보라바람 폭풍쳐나아가는 우리 인민과 녀성들의 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중앙통신]



# (시) 병사의 어머니

초소에 선 아들이 보고싶을 때마다  
벽에 걸어놓은 입대증을 바라보며  
어느새 군복에 정이 들고  
총대와 가까워진  
나는 병사의 어머니

군복입은 모습은 대견했어도  
기상구멍에 제대로 깨달아  
훈전에서 뒤지지 않음과 격정없었더니  
어이하여 창밖에 눈비내려도  
이처럼 마음편히 발전잠에 드는것인가

아들의 병장에  
복부의 줄이 늘어갈수록  
어머니의 마음도 구태원이 되는듯  
어이하여 자식을 초소에 세운 그것으로  
나날이 격정보다 행복이 커가는것인가

아, 내 아들이 지켜선 외진 초소도  
당중상위원회 트락과 잇닿은

정든 고향집으로 만들어주신 그 사랑  
위대한 병장의 품에 귀한 자식 맡긴  
병사의 어머니가 무슨 걱정이 있으리까

그리운 마음속에  
늘 어린 자식으로만 남아있더니  
표창휴가로 문득 들었던 그날  
넓어진 가슴에 작아진 어머니를  
의적이 안아주던 틈틈한 병사

물라보게 성장한 아들앞에서  
놀랍게 느끼는 눈물겨운 기쁨은  
어머니란 말보다 더 정답게 부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최고사령관동지  
군복처럼 몸에 배인 진정의 그 부름

정녕 세상에 제일 위대한하신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  
병장의 그 슬하에서 경과 났을 지니고  
무자비한 중의 불덩이를 날리며

렘 형 미  
용맹과 배짱을 키우는 일당백병사  
아,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우!  
그 위대한 믿음으로 불리우는 내 아들  
어머니의 두팔로 다 안을수 없는  
조국의 아들로 이 가슴에 안겨주신  
원수님이 고마워 정녕 고마워

말하고싶으려  
자식과 더불어 행복한 어머니 많다 하지만  
선군시대 병사의 어머니보다  
더 긍지로운 어머니는 없기에

아들이 잠은 좋은 어머니가 잠은 총  
아들이 입은 군복은 어머니가 입은 군복  
조국과 가정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수령결사옹위의 전장에 자식과 함께 선  
아, 나는 병사의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병사의 어머니  
여러!

청맑은 아이들의 웃음에서  
혁명의 희열을 느끼시는분  
한자식을 키우는데도  
오만자루 품이 든다 했거니  
어이 다 헤아리랴  
은 나라 아이들을 품안아 돌보시는  
우리 원수님의 그 천만고생을

원수님은 전선편리 계시어도  
이 나라 아이들은 그이의 손길 잡고  
12년째 배움의 꽃대문으로 들어서고  
그이의 축복속에 즐거운 야영길을 떠난

단다  
따뜻한 그 품속에서  
너를 안은 어머니의 웃음도 피어난단다

그 품에 자식들의 운명 맡겨  
창창한 매일을 그려보는 어머니들  
별다른 한밤에도  
그이의 발자국소리 마음속에 들으며  
사랑의 자장가 불러 아이들을 잠재운단다

정녕  
이 어머니품에 안겨 내가 자라는것이나

밀려드는 침략의 불기름 쳐갈기시며  
오늘도 전선길을 걸으시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  
밝게 웃으며 자라는 이 땅의 아이들아

아, 행복하여라  
태양의 품에  
아기도 엄마도 안겨 사는 땅  
우리 원수님 지켜주시는 사회주의 내 나라  
이 땅에선  
아이들이 웃는다  
어머니들이 밝게 웃는다!

# (시) 행복의 은하수

그 이름에 정들었더니  
그 향기로움에  
내 너를 사랑했더니  
은하수화장품  
페사롭게 손에 들수 없구나

립춘이라 산과 들도  
이직 눈속에 볼품 꾸던 그날  
멀고먼 전선길을 이어 우리 원수님  
화장품공장을 찾아주신 그 사연 뜨거워

녀인들이 아침마다 거울앞에  
가볍게 손에 드는 화장품이  
우리 원수님 마음속엔  
그리도 소중한것이었던나

고년의 그 나날  
시련의 눈비속에서  
허리머를 조이면서도

장군님을 따라 조국을 받들어온  
이 나라의 녀인들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역세게 떠미는  
강직하고 성실한 우리 녀성들에게  
은 세상이 부러웁게  
모든 행복 다 주고싶으신 원수님 마음

그이의 마음엔 안겨있었다  
푸른 하늘에 위훈의 비행운을 그려가는  
녀성추격기비행사들  
금메달로 조국을 떨친 너자축구선수들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를 가꾸가는 녀인들...

아, 이 나라 녀인들을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가꿔주고싶으신 마음  
보란듯이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우고싶으신 어머니마음

류 정 실  
사랑의 은하수되어 흐르는 행복의 불망산

아름다와라  
하늘의 팔선녀 무지개라고 내린다는 이야기는  
옛 전설로 남아있지만  
원수님 펼쳐주신 사랑의 은하수 타고  
아름다운의 질정에 오른 우리 녀인들

금지로와라  
하늘의 별인양 무지개인양  
시대의 꽃으로 밝게 웃는 모습들  
저고리고를 날리는 가슴들엔  
자랑놀이 빛나는 위훈의 금벌들

아, 은하수는 하늘에만 비긴다더냐  
행복의 은하수  
이 나라 녀인들의 얼굴에 먼저 비기니  
그 모습에 거리가 환해지누나  
그 향기에 조국이 젊어지누나

# (시) 노래하노라 3.8절을!

한아름 되었구나  
가정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저마다 인격자든 축하의 꽃다발  
내 영웅도 공로자도 아니건만  
다만 녀성인것만으로  
등등 떠받들린 이 3.8절

극장도 상점도  
녀인들만을 위해 열린듯  
달리는 뺨소도  
녀인들만을 위해 바쁜듯  
설레며 불비며 거리는 흥성이네

어머니마냥 두팔벌린 평양산린 정문으로  
새 생명을 안은 녀인들  
품속에 묻힌채 너왕처럼 걸어나오누나  
육류야동병원의 정거는 바래움속에  
꽃다발이 튀어나오는 아이들은  
꽃다발되어 어머니 품에 안기누나

왜 이리 유정한가 이 불날  
우리 땅, 우리 하늘, 우리 거리...  
새삼스럽구나  
내 머리없는 그애부터  
이날마다 받은 무수한 꽃다발이...

어찌 무심할수 있으랴  
내 꽃다발에 애원하신 이 시각에도  
자본의 세계에서 짓밟히는 녀성들  
그 비참한 모습들은  
매없이 이 마음 쓰라리게 하는것을

나누어주고싶구나, 이 꽃다발 송이송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권리를  
미싸일에 맞아 형제없는 남편과 자식을  
피멍든 가슴에 묻은  
이 행성의 불행한 녀인들에게

한송이 또 한송이 눈물젖은 흰 꽃을  
진도알바다에 띄워보내며  
《세월》호와 함께 수장된  
꿈많은 자식을 부르고 부른다  
플금없는 원한에 피드리는 남편의 녀인들을

따뜻한 우리 마을에 깃들일수 있다면...  
내 만약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나의 행복 상상할수 없으리  
이 몸은 불날에도 락염처럼 스러지고  
3.8절은 탄식의 긴 하루로 눈물겨웠으  
리라

오, 속절없이 흘러가던 어두운 속명의  
세월에  
애라게 갈망하던 녀인들의 밝은 세상이  
오직 위대한신 수령님들 한평생의 헌신으로  
이 땅우에 찬란히 펼쳐졌나니

이 땅엔 3.8절이 따로 있던가  
우리 식 사회주의여  
해빛같이 따스한 어머니손길  
아침처럼 비가들어 내세워주며  
꽃다발안은 이 몸도  
꽃이라 불러주는 세상이여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틀림없이  
내게로 달음쳐온 기쁨과 환희  
가슴울렁이며 기다리는 미래의 그 모든것  
사회주의 이 집에 생을 받은 덕이구나  
위대한신 어머니품에 내 안겨 사는 덕이  
구나

뵈고싶이라  
뵈고도 뵈고도 또 뵈고고만싶어  
수수한 관망사에 앉으시여  
은 나라 녀인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3.8절을 축하해주시던 우리 원수님

볼뵈지않고 떠났던 그 미소 지으시고  
금지라도 원수님 우리 일터에 오실듯  
다정하신 그 음성 가까이 울리시면  
그러면 아, 그러면...

육류야동병원에 오셨던 그날처럼  
방직공녀인들의 일터를 찾아주신 그날처럼  
사뭇치는 한호의 열과속에 선한 달려가리라  
달려가 남편의 인사를 드리리라

자재로운 그 품은

한 동 신  
녀인들의 자그마한 심장속에서  
참된 어머니의 사랑이 샘솟게 하고  
훌륭한 안해의 미덕이 꽃피게 하고  
이름없는 이 녀인에게도  
시대와 혁명을 떠밀어 보란만  
녀성혁명가의 삶을 가르쳐주나니

사랑하노라  
구룡령할머니의 대의원과  
평범한 방직공의 로력영웅메달을  
조국의 이름떨친 녀성체육인의 금메달과  
녀성교육자, 녀성과학자들의 높은 창조를  
이 나라 녀인들의 앞가슴에 빛나는  
그 값높은 명예속엔  
나의 존엄 나의 긍지 다 깃들어있어

감사를 드리노라 친근하신 어버이께  
금방식같은 보금자리가 밤마다 잠 못 드는  
과학자안해들의 울먹이는 마음 담아  
나의 전우의 안해들이라 불러주신 그  
민음에  
하염없던 군인가족들의 뜨거운 눈물 담아  
바다물에 뛰어들어 그이를 떠러서던  
섬초소녀인들의 심장의 말을 담아  
궁전같은 옥아현, 애육현에 아들딸 맡긴  
녀인들  
낳은 자식 키워 못보고 간 그녀인들의 큰절도  
이 가슴에 안고서 내 삼가 드리노라!

노래하노라 노래하노라  
혼장같은 꽃다발 한아름 안고서  
단약 세상에 다시 태어날수 있다면  
열번도 백천번도  
사회주의 이 집에 나는 태어나리라  
우리의 승리를 믿는 아들딸들을  
키우고 또 키워내리라

오, 사회주의를 받드는 강인한 녀성들이여  
높이 흔들자 3.8절의 꽃다발을  
우리의 머리우에 태양은 눈부시다  
그 빛깔같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리라!

# (시) 어머니들이 웃는다

맑은 눈동자에  
가없이 푸르른 하늘을 비껴당고  
이 엄마를 바라보며  
밝게 웃는 아가야

네 꿈나래 펼쳐갈 지 푸른 하늘  
첫걸음 때 행복만이 땅

너를 향해 마중오는 아름다운 미래는  
얼마나 눈부신것이나  
가장 따스한 해살이  
너희들의 요람가에 비쳐든단다  
세상에 들도 없는 황홀한 공전들이  
너희들을 두팔벌려 기다린단다

리 연 희  
아는나 아가야  
자식들을 위해  
어머니를 찾아야 할 눈비 다 맞으시며  
콩우유가 떨어질세라  
창가에 찬바람 스며들세라  
마음쓰며 보살피는 어머니가 계시는줄  
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꾼들, 품로있는

한송이 또 한송이 눈물젖은 흰 꽃을  
진도알바다에 띄워보내며  
《세월》호와 함께 수장된  
꿈많은 자식을 부르고 부른다  
플금없는 원한에 피드리는 남편의 녀인들을

자재로운 그 품은

공명을 날이며 세계교에의 침단공작  
들을 대담하게 손색없이 수행하는 내배우  
들의 용맹한 모습은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  
냈다.

창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강점과 지  
향의 총모마에 반영된 공연은 시간이 흐  
를수록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에 반영하는  
로동당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  
심을 깊이 새겨주었다.

무대와 공중에서 교예제주들이 리듬적으로  
펼쳐지고 장내에 꽃보라가 뿌러지는 속에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송고한 뜻과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사회주의만  
복이 꽃피는 인민  
의 락원이 반드시  
일떠서리라는 확신  
을 안겨준 공연은 관  
람자들의 절찬을 받  
았다.

전체 관람자들은  
우리 녀성들을 사회  
의 꽃, 나라의 꽃으  
로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  
들어 최후승리를 앞  
당기기 위한 총공격  
진을 힘있게 다져갈  
혁명적열의에 넘쳐  
있었다.

# 선군조선의 녀성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 3.8 국제부녀절 105돛기념 국립교예단 축하공연 진행

【평양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전세계  
근로녀성들의 명절인 3.8국제부녀절 105  
돛을 맞는 온 나라 전체 녀성들은 대를 이  
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풀없는 행복과  
참된 삶을 누려가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  
에 넘쳐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조국의 강성번영과  
사회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하여 영예  
로운 본분을 다해가는 녀성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3.8국제부녀절 105돛기념 국립교예단  
축하공연이 8일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되  
었다.

공연장소는 우리 녀성들을 혁명과 건설  
의 힘있는 령장으로,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담당자로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녀성들의 국제적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관람자들의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밝은 미래를 꽃피우시며  
조선녀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대한 다함없는 품도와 감사의 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최룡해동지, 양철섭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꾼들, 품로있는

녀성과과학자들 비롯한 평양시안의 모범  
적인 녀성공로자, 로력혁신자들, 녀령일  
꾼들이 남편, 자녀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  
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  
녀성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무관  
부부들, 외국인들이 공연에 초대되었다.

《녀성은 꽃이라네》의 노래가 장내에 울  
리는 속에 출연자들이 3.8국제부녀절을  
맞는 녀성들에게 꽃송이들  
을 안겨주며 열렬히 축하하  
였다.

극장무대에는 빙상교예  
《은반우의 청춘들》, 《빙상  
출발기》, 체력교예 《도립조  
형》, 《2인회전조형》, 《세월  
진회》, 《그네와 널뛰기》, 환  
상요술 《요술사의 묘기》,

희극교예 《툰제주》, 《응원대장》, 동물교예  
《곰돌이》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  
렸다.

출연자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  
밀고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보람찬 생활을  
독특한 기교와 훌륭한 교예제주들에 담  
았다.

재치있고 기백있는 동작들로 관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신비한 요술의  
세계를 해학적인 연기로 형상한 공연종목  
들이 펼쳐질 때마다 장내에서는 웃음소리,  
박수소리가 연방 터져나왔다.

관람사진체를 무대로 삼아 유묘미적인  
형상으로 관중과 적극적인 교감을 이룬  
희극교예는 관람자들의 기쁨을 더해주  
었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  
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

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 우리 녀성  
들의 당대한 기상과 역센 의지를 보여주는  
체력교예 《우주는 부른다》, 《날아다니는  
처녀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공중을 날이며 세계교에의 침단공작  
들을 대담하게 손색없이 수행하는 내배우  
들의 용맹한 모습은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  
냈다.

창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강점과 지  
향의 총모마에 반영된 공연은 시간이 흐  
를수록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에 반영하는  
로동당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  
심을 깊이 새겨주었다.

무대와 공중에서 교예제주들이 리듬적으로  
펼쳐지고 장내에 꽃보라가 뿌러지는 속에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 제4차 휘퀘라스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였던 우리 교예배우들 귀국

【평양 3월 8일발 조선중앙  
통신】제4차 휘퀘라스국제교예  
축전에 참가하였던 우리 교예  
배우들이 8일 렬차로 귀국하  
였다.

우리 교예배우들은 지난해  
제3차 휘퀘라스국제교예축전에  
이어서 이번 축전에서도 최고상인  
금코끼리상을 쟁취하여 선군조선  
의 영예를 또다시 빛내었다.



당과 국가의 세  
심한 보살핌속에  
서 긍지높고 보람  
찬 삶을 누려가고  
있는 우리 녀성들  
의 행복넘친 모습을 목격한 외  
국의 녀성들이 자기들의 저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몽골사회민주당녀성동맹대표단  
단장 췌. 초크를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는 녀성들의 생활과 건  
강을 책임적으로 돌봐주는 정연  
한 체계가 세워져있다.

녀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국가적으로 돌봐주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주고있다.

국가적으로 실시되고있는 녀  
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훌륭한  
우대정책이 조선에서 날이 갈수  
록 녀성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  
이 높아지고 어린이들이 앞날의

### 은혜로운 품속에서 조선녀성들이 누리는 긍지로운 삶

외 국 녀 성 들 의 반 향

역군으로 튼튼히 자라날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된다고 생각  
한다.

이것은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들  
의 뜨거운 녀성사랑, 후대사람  
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그  
크나큰 은정속에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에는 온갖 행복이 끊임없이  
찾아들고있다.

조선녀성들이야말로 이 세상  
복이런 복을 모두 독차지한 가장  
긍지로운 녀성들이다.

위인의 품속에서 누려가는 조  
선녀성들의 행복한 삶에 대하여  
앞으로 널리 소개선전하겠다.

몽골사회민주당녀성동맹대표단  
단원인 췌. 오운다리는 이렇게 자기  
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훌륭한 병원들에서 모든 녀성  
들과 어린이들이 무상으로 치료  
를 받고있는것이 몹시 부럽다.

가는 곳마다에서 보게 되는  
조선녀성들모두가 하나와 같이  
아름답고 건강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기에 조선  
의 모든 녀성들이 이처럼 만복  
을 누리고있는것이다.

몽골사회민주당녀성동맹대  
단 단원인 췌. 칸터그스는 평양산  
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참관하고  
이처럼 감미한 설비들을 갖춘  
현대적인 병원에서 많은 녀성  
들이 무상치료를 받는다는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

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현실이 조선에 펼쳐  
지고있다. 조선녀성들은 정말  
행운아들이라고 걱정을 토로하  
였다.

일조우호녀성대표단 단장  
야마우라 치즈에는 창건거리의  
살림집을 돌아보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였다.

녀성근로자가 훌륭한 집을  
무상으로 받은것이 믿어지지 않  
는다.

평범한 녀성이 자본주의사회  
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호화스러  
운 주택을 받았더니 이런 희한한  
일도 있는가.

이 가정의 소박한 주부가 로력

부담을 덜어주고있다. 그렇기때  
문에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야무  
런 근심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수 있으며 능력껏 일할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녀성들이 아이를 낳고싶어도 낳  
지 못하고있으며 낳기를 두려워  
하고있다. 녀성들이 가정을 가  
지고 아이를 낳으면 곧 해고되  
기때문이다.

가정과 직업중에 하나를 택해  
야 하는것이 자본주의사회녀성  
들이 안고있는 비극이다.

조선은 녀성들의 참된 권리를  
그들의 요구에 맞게 보장하고  
있는 훌륭한 나라이다.

【조선중앙통신】

# 3. 8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여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6. 15공동선언 발표 15차, 조국해방 70년이 되는 해에 3. 8 국제부녀절을 맞이하여 우리 여성들은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더욱 굳게 하고있다.

우리 민족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분별은 장장 70년동안 지속되면서 북과 남으로 갈라진 겨레의 가슴마다에 피멍이 들게 하였으며 누구보다 우리 여성들이 전쟁위험을 견뎌야 했고 고통을 겪어왔다.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끈은 더욱 깊어만 가고있으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참예한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올해 정초에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북남대화재계의 기대가 뜨겁다. 그러나 높아졌으나 이 땅에는 또다시 전쟁의 짐은 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있다.

전쟁의 위험과 분별의 상처를 더이상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없다.

외세의 모든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며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자는것

이 우리 여성들과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고 북남관계개선을 적극 추동하는데 앞장설 굳은 결의와 의지를 담아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여성들에게 호소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여성들이여! 누구보다 평화를 귀중히 여기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헌신하였던 우리 여성들이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합선을 마련하기 위한 전쟁반대, 평화수호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철저히 고수투쟁하여야 한다.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던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리행하고 비무장상태를 중단하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는것이 선적적이다.

지난 시기 북, 남, 해외여성단체들 사이에 진행되었던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다양한 통일운동의 활동을 재가하며 더욱 활성화하자!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은 곧 평화이며 조국통일이다.

# 또다시 발작한 <종북>광기

얼마전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리퍼트가 현지의 주민으로부터 칼세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남조선시민단체인 <우리 마당> 대표 김기중은 <남북은 통일되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웨치며 리퍼트에게 징벌을 안기었다.

그것은 그 어느 일개인에 대한 반감의 표시 이전에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남조선에서 북침전쟁발발장난에 미쳐달려있고있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항거의 발현이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미국대사관이 문화원에 대한 습격, 방화, 폭파사건과 같은 반미투쟁이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방식은 다르지만 이번 대사정벌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반미감정에 의한것>이라고 평한바와 같이 사건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지고있는 반미기운과 판연된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이번 미국대사정벌사건을 덮어놓고 <종북세력의 소행>으로 몰아붙여 우리들을 모욕하는 또 하나의 대결판대국을 벌이고있다.

피괴당국은 안전보장회의나, 고위급회담의 회나 하는것을 잇달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북과 남의 사상적관계가능성>이니, <예후조사>니 뭐니 하며 <종북>소동에 열을 올리려고한다.

집권상층부가 지정해준 <수사방향>에 따라 파쇼폭압기구들과 보수언론이 때를 만난듯이 <종북세력척결>나발을 불어대고있다.

미국대사에게 분노의 칼세례를 안긴 주인공 이전에 북을 몇차례 방화하였다는니, 과거의 <천북행적>이니, 일본대사에게 벽돌세례를 안겼을 때에도 <북이 적극 비호>하였다더니 하면서 이번 사건을 우리와 연결시키려고 모피를 쓰고있다.

이쯤 되면 괴뢰들이 이번 사건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남조선에서의 반미기운을 억제하고 동족대결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얼마나 리성을 잃고 달려는가 하는것을 잘 알기이다.

년초부터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을 악랄하게 시비중상하고 위협잔란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는것으로 도저히 해나갈수자들이 남조선피괴당이라는것은 세상이

# 미국과 친미호전세력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나서자

자들의 정책목표라고 거리낌 없이 제쳐두고있는 오바마의 폭언과 전쟁광판자들의 망발이 계속되고있고 때를 같이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고 비난하였다.

북한핵폐기와 미국상선의 폭주각사, 동경대가 되어 북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시비질하며 침략자 외세와 함께 도발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을 강행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러한 꾀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불세력들을 자칭하는 당동이며 제 죽을줄 모르고 불초에 날아드는 부나비와 같은 사육형외국군 규탄하였다.

침략과 전쟁소동에 광분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는 오직 무자비한 징벌밖에 통할것이 없다고 하면서 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인들이여! 지금이야말로 전민족이 미국과 친미보수집권세력의 핵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결연히 펼쳐야 할 때이다.

모두다 분별의 혼룡, 전쟁의 근원인 미국을 반대하는 결사항전에 총분기하자!

미국에 필요안것은 <한>

반도의 평양어러이지 결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저들의 동북아시아제국주의를 위해 핵무기로 이 땅을 초토화시킬것이다.

미국의 핵무기앞에서 우리 국민은 그 누구도 안전할수 없다. 민족운동을들은 미국이 해마다 이 땅에서 벌리는 전쟁연습의 위험성과 그 검은 목적을 날날이 가깝혀 민족을 각성시키고 반미투쟁대오를 확대해나가자!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너도나도 떨쳐나서자!

거리와 마을 도처에서 반미, 반침략투쟁의 함성을 더욱 높여 올리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각계 민족은 주 <한> 미군을 물리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가자!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인 침략자 미국과 최후정권을 내기 위한 운명의 반미투쟁에서 청년들이 시대의 선봉투사자 되자!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국민의 생명이 핵전쟁에 위협당하는 상관이없이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의 기회는 열망 사자였다. 남은것은 오직 힘의 대결에 의한 최후의 결판뿐이다.

# 전쟁불장난을 확대하기 위한 위협천만 한 군사적움직임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악랄하게 강행되는 최괴규모의 북침전쟁소동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미제침략군의 함선들이 려이 어 밀려들며 합세하고있다.

5일 미제침략군 해군의 이지스수출함 <라센> 호가 동해항에 기어올랐다.

이와 함께 이지스수출함 <존 에. 맥킨스> 호, 연안정찰함 <프루트스> 호, 구조함 등이 남조선의 동해항과 평해항에 줄줄이 쏟아져들었다.

동해에서 피괴해군 1함대와 연합함대함정들을 강행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지난 2월 25일에 기여 든 미제침략군 이지스수출함 <마이클 맥기> 호가 지금 남조선해역을 돌다지며 전쟁화약배를 풍기고있다.

미제와 피괴외전함들은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를 축소하는것처럼 떠돌면서 여기에 <연례적인 방어연습>의 외피를 씌웠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미제침략군병력을 해외에서 지난해 보다 더 많이 남조선에 끌어들이

미국과 서방의 음모책동 규탄

아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런데통명 하싼 루하니가 2월 25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서방의 부당한 제재에 굴복하지 않을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는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인권유린행위라고 하면서 최종핵합의를 위한 회담에서 비협조적이거나 고착한 모든 제재조치들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란인민은 과학을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그 누구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라는 데 대해 련장들은 잘 알아

미국에서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 사건 발생, 살인만행에 항의하여 시위

미국 위스콘신주의 매디슨에서 6일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경찰이 무방비상태의 19살 난 흑인소년에게 총을 쏘아 무참히 살해하였다.

지난해 퍼구슨사태로 미국전역을 휩쓴 격노한 군중의 반인종주의 함성이 가라앉기 바쁘게 강행된 백인경찰



팔레스타인에서 반이스라엘 시위

미국과 서방의 음모책동 규탄

아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런데통명 하싼 루하니가 2월 25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서방의 부당한 제재에 굴복하지 않을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는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인권유린행위라고 하면서 최종핵합의를 위한 회담에서 비협조적이거나 고착한 모든 제재조치들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란인민은 과학을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그 누구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라는 데 대해 련장들은 잘 알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가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미국의 주요외교정책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행동보다 집단적인 행동을 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대단한 일삼던 미국이 앞으로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을 추종세력을 장려리 동원한 집단적인 군사적행동에 의거하여 실현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의 <위협>을 경고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한것이다.

오바마가 직접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우리의 <도발>과 핵무기 중대한 <현실적 위협>이라고 하였다. 미국방위부 장관도 조건의 핵무기와 미사일 장비와 더욱 동맹국, 나아가서 미국본토에 <위협>으로 된다는나발을 불어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가.

이번에 미국은 군사적행위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확고히 장악하려는 전략에는 변화가 없으며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것을 보다 명백히 하였다.

미국은 세계대대항을 실현하는 데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가장

강행하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중국의 대응도 그만큼 거세어질것이며 이로 하여 중미대결이 한층 심화되게 될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들은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에 비롯한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집단적인 행동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 하는것을 용납할수 없다고 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군사적대결과 충돌의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도 부득불 자체의 안전을 위해 군사력강화에 힘을 넣지 않을수 없게 되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조성된 긴박한 정세는 우리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이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여 우리들을 <위협>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조선반도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어가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그렇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언제나 자주와 정의의 위를 두루 행하여 온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를 위하고 하는 자주적대결을 확고히 세우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본사기자 리 화 남